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음 2월 2일) 제15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34

더민주 전북지역 총선 대진표 윤곽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제20대 총선 전북지역 대진표를 윤곽을 드러냈다. 더민주주는 9일 1차 현역 경선지역 10곳과 원외 경선지역 8곳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전북지역은 '전무(全無)설', '1명설', '최대 2명설' 등 탈락 현역 예상후보와 관련된 설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가 결정돼 이러한 설을 일축하게 됐다. 이들 두 선거구도 10일쯤 경선주자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승부지역은?

전주 을(이상직, 최형재), 익산 갑(이춘석, 한병도), 완주진무장(박민수, 유희태, 안호영) 등 3개 선거구는 후보들간 경선이 확정됐다. 전주 을은 최형재 후보가 이상직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19대에 이어 재결투하게 됐다. 익산 갑은 변수가 남았다. 더민주 공관위가 익산 갑을 지역구도 경선지역으로 분류해 당 비상대책위에 보고했지만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비대위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민수, 안호영 후보는 진안무주장수를 유희태 후보는 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단수와 전략공천지역은?

전주 갑은 김윤덕 후보가 단수 확정됐다. 김 후보는 재선 고지 도전에 나선다. 또한 전주 병의 경우도 단수가 확실시 되고 있다. 김성주 후보와 성은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인지도와 지역 여론조사 등에 따라 김성주 후보에 대한 단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략공천 지역도 확정됐다. 정읍고창은 하정열 후보로 결정됐다. 군산은 앞서 함윤경 후보가 더민주에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뚜렷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전략공천으로 갈 것인 전망이다.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컷오프 지역(?)

남원임실순창은 경선할지 아니면 전략공천

도내 더민주 공천 현황

- 전주 갑 - 김윤덕(단수)
- 전주 을 - 이상직·최형재(경선)
- 전주 병 - 김성주(단수 가능성)
- 군산 - 전략공천 가능성
- 익산 갑 - 이춘석·한병도(경선)
- 익산 을 - 미정
- 정읍고창 - 하정열(단수)
- 김제부안 - 최규성·김춘진(경선 가능성)
- 남원임실순창 - 미확정
- 완주진무장 - 박민수·유희태·안호영(경선)

전주 을 등 3곳 경선 확정 전주 갑, 김윤덕 의원 굳히기 정읍고창, 하정열 전략공천 남원임실순창, 아직 미결정

으로 통해 새인물을 세울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강동원 예비후보가 컷오프 될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면 본선 대결 기회가 사라지게 되지만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오히려 표 분산으로 상대 당 후보에게 이롭게 될 밖에 없다. 한 정가 관계자는 "사실 더민주가 전북지역 어느 한곳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선거구가 없다. 강 후보가 탈락된다면 그야말로 인겟속 선거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제부안도 김춘진 최규성 두 후보가 맞붙는 양강 구도의 경선대결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같은 3선과 지역구를 가진 두 후보에 대해서 굳이 컷오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 총 15명이 공천 신청했다. 현재 전주갑(전상덕, 전희재), 전주병(양현섭, 김성진), 익산갑(김영일, 임석삼), 남원임



“거부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이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막달 파문으로 구설에 오른 윤상현 의원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실순창(김태구, 김용호, 오철기) 등 4개 선거구에 대해서 다음주쯤 경선과 단수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당은 9일 49명의 단수 공천지역과 12개 경선지역을 확정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지역별 경선 또는 단수 공천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은 이번주까지 심사완료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20일 이전에 후보자들이 확정될 전망이다. /신광영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내 예비후보자 경쟁률 전국 3위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제20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이 약 2주정도 남은 가운데 전북지역 예비후보자 경쟁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정당별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 '친박' 윤상현 '비박' 김무성 욕설 파장 '확산일로'

새누리 양계파간 공방 전개

새누리당이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9일 '윤 의원의 정계은폐' '정치공작' 등 엇갈리는 주장 속에 장외 공방을 벌이며 맞서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직접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윤상현 의원을 문전박대 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듯한 윤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공관위원들도 최대한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공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윤 의원이 친박계 종전 B 의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비박계)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라며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 부터 속아내고 속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버려 한 거"라고 김 대표를 컷오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이 사안을 놓고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파문이 일파파 번지자 이날 오전 11시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급거 상경, 김무성 대표를 찾았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종전연석회의장으로 자신에게 사과하러 온 윤 의원에 대해 "만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주 기자

전북도 관광패스라인 '도마위'

전북도의 허점 많은 관광패스라인이 전북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의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난 해 10월,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명확한 성공 가능성마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성과 온라인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아쉽게 준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저조한 판매실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광영 기자

KTX 혁신역 설립추진위원회

도민의 힘으로! 전북의 동력을 만들자!

KTX 혁신역 설립 추진을 위한 제2회 희망 콘서트

2016. 3월 10일(목) 저녁 7시 30분
전북대삼성문화회관

MC 김현수 이희정

홍진영 성진우 지원이 선경현 유미 오현

■ 공동주최 : KTX 혁신역 설립추진위원회 / (사)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 후원계좌 : 농협 351-0748-9945-63 ■ 기획 : 바운스기획
■ 후원 : 전주매일 ■ 협찬 : (유)한강건설, (유)하늘케어, 법무법인 백제 ■ 티켓문의 : 255.0049